

애월읍 어음1리, 1984.7.70., 김영돈, 김지홍 조사.

김승추, 남·76.

* 줄거리 : 옛날 삼형제가 서당에서 한문을 배우다가 결심한 바 있어, 도학(道學)을 배우기로 했다. 산중으로 올라가 스승을 정해놓고 십년간 정진하였다. 형제들을 서로 함께 합숙을 하였다. 큰형이 식사당번일 때는 두 동생에게 밥을 많이 남겨주고, 자기는 아주 적게 먹었다. 둘째는 꼭 고르게 배분하였다. 막내는 자기만 많이 먹고 형들은 아주 조금씩 주었다. 도학을 다 배운 뒤 삼형제가 각자 자기 갈길을 찾아 떠났다. 둘째는 평양감사가 되었다. 이곳 저곳 순회하면서 다니다 어느 곳에서 쉬고 있는데, 우연히 큰형을 만났다. 형 사는 데가 궁금해서 형과 함께 형집으로 갔다. 조그만 초가집에 꽃들이 피어 있었다. 동쪽 창문을 열면 밭을 가는 풍경이 보였다. 서쪽을 열면 가을 풍경이 보였다. 북쪽으로는 겨울 풍경이 보였다. 형이 앞뜰에 있는 무우 비슷한 걸 먹으라고 내주었다. 그것은 동삼(童參)이었다. 막내가 보고 싶다고 하자, 큰형은 주문을 외었다. 구렁이가 나타나고, 다시 도술로써 사람이 되게 하였다. 큰형이 막내보고 뒤뜰에 가서 복숭아 세 개를 따오도록 하였다. 막내는 뒤뜰에서 나무에 달린 복숭아가 네 개임을 알고 몰래 하나는 거기서 먹어버렸다. 이 때문에 다시 구렁이로 변하였다. 둘째는 평양감사의 일이 생각나서 되돌아 나왔다. 그러나 자기가 가마를 쉬게 하던 곳에 오니 아무 흔적도 없었다. 동네 사람들에게 들어 보니, 몇 백년 전에 그곳에서 평양감사가 실종된 적이 있다고 하였다. 순식간에 몇백년이 흘러 버렸음을 알고, 둘째는 다시 형이 사는 곳으로 돌아 왔다. 거기서 동삼을 먹으면서 둘째도 형처럼 신선이 되었다. 그러나 욕심 많던 막내는 끝내 욕심을 버리지 못하여 구렁이가 된 채 살아갔다. *

이 탐리(貪利), 이를 너무 탐하고 욕심이 씨며는 베염이 된다 한 거. 거 하나 잊어요. 겨니 사름의 심장이라고 한 거, 심장은 벤하기 어려운거여. 거 말해 주주. 심장은 원래 포태양생(胞胎養生)할 때에 그렇게 생겨나민, 아무리 도를 다르고 아무리 좋은 맛음을 잘홀라 하여도 결국 그게 남아있나 한 거. 심장이라한 건 벤하기 어려운 거. 겨니 사름은 난 대로 된다 하는 게 잊어요. 원래 맛음이 착하고 그 덕을 다다가는 사름이라야 됩디, 원래 심장이 나쁜 거는 경 못하는 거여. 걸 잘 알아사 돼여.

어떠한 사름이 식성젠디(세 형제인데). 머 한문 서당에 좀 댕겨보니, 이걸 아무것도 아이라. 글 거 알아 밧자 아무것도 아이여. 조기 빈부귀천(貧富貴賤)은 조기 운명에 가져 잇는 겨니, 그 글이 소용 읊어. 하니,

“우리 도학(道學)을 공부하자.”

서이 당장 정했어. 식사름이 결심적으로 한 거지. 도학이란 건 아마 십년쯤 해사 될 거라. 거는 도통(道通) 공부니까네.

식성제가 산중으로 올라갔어. 선생을 좇앙 정했었어. 선생은 산중에 잇는 그 아마 대스(大師) 도통한 영감, 시님(스님). 요새 7뜨민 시님이지. 단지 이 식상에 물욕(物慾)이란 거 읊는 하르방이라. 이 하르방은 순전훈그자 돌(道를) 다르고. 이 산채(山菜) 점심이란 거 잊어요. 산채 점심. 산나물(산나물)로 점지, 맛음을 점친다 한 거. 이 점심이란 거 많이 먹는거 아니여. 이 맛음에,

아 나가 먹어졌다 생각하민 점심이 되는거라. 점(點)째가 모름에 점만 하민 돼여. 아무거라도 산 채 점심이라 산노물로 점심 맨들아 그 영감이. 아, 이놈덜은 가니, 머 그럴 순 웃거든. 아명하여도 밥을 행 먹어사 되는 거라. 경해야 배가 7득거든.

아, 식놈이 조대식(교대식)으로 밥을 하거든. 삼성제 하나씩 하는 거라. 걸 이제 밥을 하는데, 큰놈이 딱 밥을 해낼 땐 조기는 조그마니 먹고 그 아시덜은 똑 7찌 쥐 불어. 많이 쥐. 조긴 아주 상당히 일찍 먹어 불어. 그 버금은 당번이 셋놈이라. 셋놈이 이제 밥을 하영 낼 땐 똑 씻이 7르게 하여. 이견머 성이고 아시고 죽 고르게 평균티으로 밥을 하영 먹어. 아, 이 죽은놈은 밥을 턱하민 조기꺼(양이 많음을 두손을 벌려 나타내면서)이만이게 이빠이하고, 성덜은 영 캐우리¹⁾는 체 내불어. 이런 놈의 조석. 이런 놈의 사름이 도혹공부하겟다고 하니 벨 수 있어? 너미 지나치게 그렇게 맨들아 부니. 게도 거 식성제가 십년을 공부했다.

공부 다 하난 씻이 작벨했어.

“우리 씻이 이제랑 사훼 인간으로 나가서 멀하영 살아보자. 공부 이만하여시니까 도를 통해서 니 이젠 아무거나 홀 거라.”

아, 큰놈은 어디 가난, 셋놈영 죽은놈도 조기 각각 떠나부난원. 이견 어디 삼성제가 어디 간 처렐(줄을) 몰르커라.

셋놈은 그 바르게 밥을 쪽 고르게 한 놈은 사훼에 나오란. 시험을 치르난 거 과거(科擧) 시험이주. 단작(당장) 평양감소가 됐다. 평양감소. 평양감술 셋놈이 해였다. 하니 거 평양감소라는 건 잇날 우리 팔도감소 가운데 제일 췌고로 바요. 지금도 평양 이렇다 한게. 이거 잇날은 충청감소니 경상감소니 전라감소니 해도, 평양감소는 췌고 바. 평양이 질(제일) 까다로와. 사름덜이 질 까다롭곡 목쓸어(사나와). 이련디 이 평양감소는 그 통치하는 게 보통이 아니거든. 하여 똑 평양감소 거머 삼십육각²⁾ 궂추왔어(갓추었어). 평양감소는 삼십육각 서름 9섯가지 뿔각(角)을 궂추왔어. 게민 잇날은머, 요샌 차 탕 조가용이나 탕 돈주마는, 사름이 들러 평양감샐. 가매. 가매 알지? 아주 가매가머 봉황(鳳凰)을 다 그리고 벨걸 다한 가매지. 처음 보민 얼랑비찍하여. 게민 청사초롱(靑莎草籠)이라한 초롱이 있어. 청사초롱 불을 붙혀, 낮의도 행할 때. 양쪽에 그 청사초롱 딱하게 돌아매영. 이젠 그 나팔군이 있어. 처음놈이 불어가민 뒤엀놈이 불어. 이견머 바로 호강이라. 아이, 참 평양감소쫘 돼민 견머 일생 호강이쥬. 죽음에 대해서는 거 홀 수 웃는 거주마는. 그 산 때는 그렇게 아주 참 아름다운 생활을 하지.

이제 관속덜(官屬들) 다 궂추고 평양 여러덜 다 돌고. 이제는 가매 타서 순해(巡海) 순행하자고, 만일 어디 대통령이 어디 순해하는 거7찌. 좀 평양을 다 돌고 쑥 오더니, 한 거리에 간 턱 좀 쉬라고 낫어. 노니까 아주 변화지(繁華地)라. 건 촌(村)인디 경 변화지라. 탁 놔 가지고, 바로 잇단 성을 만난. 성을 만났어 거기서.

1) 원래 귀신에게 바치는 음식을 조금씩 떼어내어 고수레하는 것을 뜻함. 여기서는 형들의 몫으로 조금 고수레하는 분량만큼만 내어놓는다는 뜻으로 쓰임.

2) 감사의 행렬을 빛내기 위해 앞에 행진해 나가는 취악대를 뜻하며, 三絃六角을 가리킴. 삼현육각은 세 가지 현악기와 여섯가지 취타악기임. 삼십육각은 삼현육각의 잘못.

“아이고, 성님 오랜만이우다.”

“아, 자네 참 이거 오랜만이로고. 자네 이런 좋은 고관대작(高官大爵)을 했구나.”

고관대작, 노끈 베슬에 큰 베슬.

“건 성님, 그런말사? 저가 그자 어떻 즈연이 이렇게 뒀읍니다.”

거원, 도통흔 거라 노난, 전 합격은 지 모름대로 흘 거주기게. 도통으로 해 노니까며, 그까짓 게 평양가스가 멀 흠이라.

“거, 성님은 어떻게 지내요?”

“애애, 난 저 어디 산중에서 그자 홀로 영 앓아 가지고, 그자 자네하고 사는 듯 살암서.”

“하, 그렇습니까? 게, 성님 사는 디가 멀어요?”

“아니, 멀지 아녀. 요 밑에라. 너 가볼라?”

이젠 딱 그 일행덜 나두고 성을 따라갔어.

다라간 보니 벨유천지(別有天地) 비인간(非人間)이라. 벨뤼에 천지는 잇땡, 인간이 아니라. 아, 이건 사름이 두루멍청에 불었어. 탁 앓아지니 집은 우리집 닮은 초가집인디, 탁 동풍이 불라 흐민 동풍이 불고, 서풍이 불라 흐민 서풍이 불고. 브름을 모름대로 호풍환우(呼風喚雨)가 뒀어. 비가 오라 흐민 비가 오고, 개라 흐민 개고. 이러하고 사방의 그 난초(蘭草)가 다 성훈디, 무수(무우)가 저 우리집 가지 싱그듯이 무수가 탁 낫어.

“난 대접할 거 읍어. 이거 무수나 흐나 먹어 볼라?”

아, 무수 7든 것사, 평양감스가 놉빼(무우) 7든 거 흐나.

“아, 거 무술 어떻 먹읍니까며. 식스나 흐주원.”

“애, 것도 그거 아이라. 이거 흐나 먹어 바.”

무수 흐나 확 빼언 확하게 싹곡.

“이거 씹어 보주.”

아, 먹언 보니 이건 흠끼원 이렇게 좋은 늬의 무수가 웃거든. 브삭브삭 씹어 먹언. 그거 동삼(童參)인디. 이거 동삼을 먹으면 천년이고 만년이고 살고, 원 신선(神仙)이 뒀어 부는 거라.

이젠 먹어 앓안 이야기하명.

“너 좀 구경홀라?”

흐니, 그 산세(山勢)를. 동문을 올고 보니 어떤 디 밧 불리는 소리가 생야단이라. 허랑하자고, 서문을 올안 내다보니 또 눈이 백설강산(白雪江山). 이건 스시장춘(四時長春)³⁾을 영 보명 구경하는 법이여. 아, 집은 우리집 닮은 초가집이로땡, 원 이상하여. 모름에 평양감스가 생각에, 어떻혀 영 우리 성(형)이 이렇게 흐니 멀히지도 안혀영 멍청하게 사는가? 경해도 경치를 보니깐 이견원 말할 수가 읍어. 이견 경치구경로 세월 보내는 거라. 딱 먹는 것이 그자 무수 흐나뿐이고.

“아, 거좀 잇소?”

무수 먹으난, 원 이 머 기루운 게 읍어. 그 무수 흐나 먹고 나니 정신이 쫘 사름 뒀어 불었어.

3) 사시사철이 늘 봄과 같음을 뜻하나, 여기서는 여러 계절의 뜻으로 쓰였음.

“아, 거 성은 이것만 먹고 살아요?”

“아이, 이거 먹영 또 먹을 거 있어.”

또 먹을 거 있다 하느디, 아 영하디.

“서문에서 성을 만나서 영해 노니 반가운디, 거 우리 7찌 공부하던 아시 그 사름은 어떻게 됐소?”
막내이(막내) 그 사름 그 아인 어떻게 됐엇소 하난.

“자네, 그 사름 보커라?”

아마 거참 신선이난게 신선. 게니 신선이라 혼 건 안기생 적송즈⁴⁾ 그거 말해요. 신선을 본 사
람은 읊어요. 아명해도 신선이라 하며는 그건 세계에서 볼 수가 읊는 거니까. 안기생하고 적송즈
는 우리 말만 들엇주. 아, 경 곱으니,

“게민 그 동생을 보커라, 으?”

거참 신선 돼노민 흘 수 읊는 거라.

“하, 거 우리가 7찌 밥 먹곡 독숙독식⁵⁾ 하였느디, 어떻게 됐소?”

성이 거 머이라고 중중하난 딱하게 아시가 들어와. 그놈이 들어온 거 보난 구렁이라. 큰구렁이
가 슬슬하게 딱 오란 꿀려 앓아. 이건 성덜이난 흘 수 웃거든.

“자네 알암서? 요사름 영 됐엇주. 거 욕심이 많으민 못쓸 거라. 자연혼 이치로 살아 사지.”

구렁이가 영 오난 절을 꾸뻑하고. 건 구렁이로 맨들아 붙어시나네. 이젠 팽양감스흔 사름이 말
하기를,

“거, 성님은 오란 보니깐, 이 삶을 불르곡 멀하고 하니, 요거 벤신(變身)시켜서 사름을 맨들아
줍서.”

“음. 사름 맨들아 주주.”

머이라고 중중거리난, 아 사름으로 탁 앓아. 그놈의 베염이 사름 텃어게. 아시가 텃어.

“거, 자네 경 말하니, 소원 성취시켜 주주.”

하난. 앓안.

겨니 심장이라 혼 건 7찌기 어렵다 혼 거. 지금 도통(道通)이니 별걸 헛자, 원본심(元本心) 원
래부터 7진 무음이 발라야 되는 거라. 이걸 알아사 된다고. 이건 신선이난 천도실(天桃實)이게,
아명해도 천도실 하늘 복숭개.

그 천도실이라 하는 건 요건 하나 먹으민 천년을 산다 하는 거여, 천년. 둘 먹으민 이천년. 셋
먹으민 삼천년 사는거라. 그러니 이 동방새기⁶⁾라 혼 사름이 천도실을 먹엇다 하여. 삼천갑즈(三
千甲子)라 하느디. 누게 알앗어게? 삼천갑즈민 삼천년을 살앗다 하는 거 잊어요. 동방새기 삼천
년. 동방새기도 천도실을 먹엇다고, 식개. 그래서 삼천년을 살앗다 혼 거. 아, 이제랑 큰성이,

“느 저뒤에 복숭개 식개 있다. 식개 강 타 오라. 탕 우리 삼성제 다 먹게.”

아, 이녀석이 큰성 명령 받안 가고 보난, 이 복숭개 뇌개가 있어. 그 욕심이란 것이 한량(限量)

4) 신선의 이름들임. 赤松子는 神農 때 雨師였다고 함. 안기생은 미상.

5) 獨宿獨食이므로 혼자 자고 혼자 먹음을 뜻하나, 여기서는 문맥상으로 보아 형제들끼리만 같이 자고 같이 먹고 했음을 뜻함.

6) 東方朔은 한나라 武帝 때 사람으로 西王母의 복숭아를 몰래 훔쳐먹고 오래도록 살았다는 전설상의 인물임.

웁는 거라.

“아, 요걸 먹으면 상당하구낭.”

해서 복숭개 하나르 살짝 탕으네 거기서 다 먹었어. 이녀석이 거기서 하나 으씩 먹고. 한영 식
겔 타단 떡 노니,

“안 돼겠다. 너런놈, 오늘 우리 삼성제가 만나고 너 벌을 해벌(解罰)해서 우리 ㄱ찌 앓앙 놀곡
말했었더니, 너 복숭개 하나 먹지 안한영 왔나?”

한. 게난 흘 수 있어? 이거 신선이란 흰히 알아 부니까. 게난,

“느랑 이거 먹으라.”

한.

“느는 두 개 먹엄저. 우리랑 하나씩 먹자.”

한. 먹으난 닥 그 자리에서 구렁이. 눈물을 흘리멍 도망가. 흘 수 웃거든게. 건 욕심이라고
흔 건 이건, 탐진(貪瞋)이란 거 있어요.

셋놈은 잇단

“아, 이거 성님. 난 이거 어떻습니까? 저는 일행덜이 있어 가지고, 가서 행정스무를 처리하게
됩니까.”

그런게 아이라게? 팽양감스니까. 아이게, 팽양고을에 감스가 웃이민 거야 안돼거든게.

“아, 그렇지 안한여. 가자.”

한. 이제 가매 나난 디 오랏어. 오란 보니머 가매가 실 게 머여. 머 판씩.⁷⁾

그 신선은 일년이 한를, 아 한시간이 한를. 그렇게 되는 거니, 무진장 죽지 안하는 거라 신선
이 됴민. 죽는 법이 원 웃는거라, 신선이라 흔 건. 아, 이제는 그디 오란 보니 무신 가매가 시카?
이건원 강산도 십년이민 벤한다 흔 게, 멧십일 됴 분 거라. 성광 놀당 보난 멧십년 멧백년 됴어
분 거라, 불씨. 어이가 읍어. 이건 신선이 됴언, 늙는 법이 읍어. 건 불로장생(不老長生)이기 때문
에. 그대로 특해 가지고 그 동네사름안티

“여기가 아주 아무디라고 한는디, 팽양감스가 여기 넘어간 일이 웃소?”

한. 한놈이

“조금 들었읍니다. 우리 증조부님때.”

(웃음) 하이, 우스와.

“‘팽양감스 잃은 곳이엿 습니다.’

아이고, 이젠 가숙(家屬)이 잇거든게. 족보상으로도 잇는 게 아이요?”

그때 부인이라든지머 영한 팽양감스의 후례(後禮)가 불씨 증조 고조 됴어 불었어. 한. 나가
너네 하르방엔 곤도(말하지도) 못하거든. 판씩 젊언. 자네 ㄱ찌 젊었거든. 경한니 신선이란 늙지
안하는 거난. 성이 고향으로 가보라고 해서, 예하고 하직하고 왔어. 오란 보니 가매가 잇는가, 멧

7) 깨끗하고 아무런 때도 끼어 있지 않은 상태를 가리킴. 여기서는 가마는 물론 사령들도 사라져서 한사람도 없는 상태를 가
리킴.

이 잇는가? 멧백년 뉘어 불언. 신선이라 혼 거 그런 거여.

ㄱ만 잇다가,

“아, 이제는 의탁할 곳이 읍다.”

읍거든게. 아, 이견게 어느건 저거 하르방이엔 굴으민 누게가 하르방이랜 하여? 생각해 바게. 젊은 사름이 똑 자네 ㄱ튼 사름. 그대로 딱 강(아이 저거 하르방이엔 누게가 말헤영 인정하겔소? 생각해보소. 이젠 죽게), 게 뵈구낭 해서, 그 팽양감소가 가매논 디 오란 앓았어. 앓안 ㄱ만이,

“하, 이거머 살 수가 읍게 생겼구나.”

하, 성이 딱 오랐어.

“너 행펜이 어떠냐?”

“아, 행펜은 이견머 혼 멧백년 지난 멋입니다.”

“글라(가자).”

돌앙 갓어. 돌앙 간 턱하난,

“이치록 살민 좋은 거주. 거 인간이 더럽다. 인간은 추접하고 더러운 거여. 욕심쟁이 도둑쟁이 이거 많이 잇으니, 거 인간이 사름 살 곳가? 요만혼 디 웃일 거여. 우린 멧백년이고 멧천년이고 멧만년이고 이녁대로 살아간다. 천지가 혼합되도록.”

게나저나 아신 구렝이로 왔단 가 부난.

“거, 우리 혼번 뵈복(回復)시갑시다.”

“안뵈여. 불써 심리작용이 경 뵈 불어. 혼 백년, 백년 뵈민 ㄱ짚 것이다. 나가 건 가까운 디 잇 게 해 두었다.”

아메도(아무래도) 성제간 우애가 지픈 거라. 사르 맨들아 불라고, 신선 맨들아 불라고.

하니 팽양감소가

“그렇지 않습니다.”고.

“머, 성님 어떻게 거 처리하시다.”

“으.”

트멍에 혼번 불러. 이 심자(心者)는 군주지관⁸⁾이라 해서 역스(歷史)에도 나와. 멧번 연구하다가, 팽양감소로 간 사름은 신선이 뉘어 불었다. 아신 암만해 바도, 게니 심자는 군주지관인 때문에 막음을 고찌기 어렵다 하는 거라. 이 막음에 포태양생(胞胎養生)을 때에 나쁜 버르쟁이 ㄱ진 사름은 심장을 고찌지 못혼다 하여.

김영돈·현용준·현길언, 『제주설화집성(1)』, 제주대학교 탐라문화연구소, 1985, pp.154-163.

8) 孟子의 告子上에 心之官則思라는 말이 보임. 제보자가 말해주는 뜻은 마음이 으뜸되는 실체임을 가리키는 듯함.